9. 복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1:1-6)

1.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복이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을 받으면 그만이지 꼭 복잡하게 복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복을 받으면 그만이지 복이 무엇인지 꼭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무조건 잘 되게 해 달라고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2. 성경은 복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약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외형적 그리고 육신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창세기 12:2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신약성경에서는 말

하는 복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영구적, 정신적, 내면적, 그리고 영적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에베소서 1:3-5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복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만이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복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요한3서 1:2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I'm still hungry)"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16강에 진출시킨 후에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아직도(승리에) 배고프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배고픈 사람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 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적인 축복도 사모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마태5:6)'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태복음 1:23

요한복음 14:16

위에서 본 마태복음 1:23절과 요한복음 14:16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풍성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복, 평안함의 복, 존귀하게 되는 복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복이고 중요한 복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 대답은 제 각각 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고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것과 적절한 것으로 적당한 때에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1,2

위에서 읽은 시편1:1,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거나 가치와 말씀 속에 들어 있는 능력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여호수아 1: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위에서 읽은 시편1:1절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멀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찾아서 써봅시다.

악인의 _____ , 죄인의 _____ ,

오만한 자의 _____

②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 1:8

_____

_____

_____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10:10)”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의 열매’라고 한다면 축복은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수님과 올바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5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물론이고 축복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④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

시편73:27,28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18: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121:5절의 말씀처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태복음 6:33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열매와 같아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떠나 있다면 아무리 복을 받기를 원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며 또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삶의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